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27.(금)	사진 · 영상	사진(O), 영상(X)
보도일자	2026년 11월 27일(금)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강해정	☎044-300-7178

[2027 본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강해정 의원, 문 닫은 작은 목욕탕… 통합돌봄 연계해 농촌 고령자 위생 여건 개선해야

– 장군면 작은 목욕탕 2019년 이후 운영 중단… 시설 유지관리만 지속 –

– 조례 제정 취지 되살려 농촌 고령자의 위생 여건 개선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문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강해정 의원은 27일 제110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작은 목욕탕의 운영 중단으로 농촌 고령자를 위한 당초 사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통합돌봄과 연계한 실질적인 위생·건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읍면 지역 작은 목욕탕 이용 실적과 운영비 현황 자료를 요구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작은 목욕탕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장군면 작은 목욕탕은 2019년 이후 운영이 중단된 채 시설 유지관리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는 농촌 고령자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자를 주된 이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작은 목욕탕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농촌지역 고령자의 열악한 위생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간 목욕시설이 있더라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자치행정국장은 주거환경 개선과 민간 목욕시설 확충에 따른 수요 감소, 노후시설 개선 비용 등을 운영 중단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등 시설물의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목욕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에 유지관리비만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복지 대상자가 목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목욕탕과 이동목욕서비스를 통합돌봄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서와 연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활용한 위생 환경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자치행정국장은 재정 여건과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지 부서 차원에서 작은 목욕탕 관련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작은 목욕탕의 당초 조성 취지인 농촌 고령자의 위생 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거듭 강조하며, 시설 유지관리에 그치지 않고 통합돌봄과 연계해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